알아봅시다

미 농무부에서 보는 한국 육류시장 전망

본고는 축협중앙회 조사부에서 발행한 세계축산정보(World Livestock) '96. 2월호에서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홍보부-

1. 머리글

이글은 미국이 육류수출의 새로운 전략대상으로써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를 다룬다. 우리는 이글을 통해 미국의 축산당국이 우리나라를 자국의 유망한 육류수출시장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새삼스레 재확인할 수 있다. 중기적(中期的)으로는 2001년 쇠고기 완전개방, 당장은 1997년 7월 돈육 및 가금육 완전개방을 앞두고 미국은 우리나라 육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위해 유무형의 온갖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 축산인들이 마음을 새로이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미국 농무부의 주요 육류수출시장 전망

1) 주요 육류수출시장 전망

(1) 일본

미국이 육류수출전략을 짜는데 있어 우선순위의 제일(第一)에 두는 나라는 역시 최대수출시장인 일본(日本)이다.

1990년부터 1994년에 걸쳐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육류총액은 쇠고기의 경우 56억 달러, 돈육은 14억 달러, 가금육은 9억 3,950만 달러, 잡육은 15억 달러였다. 일본의 소비추세를 보면, 1995년 1월부터 8월까지 소비량은 전년도에 비해 쇠고기의 경우 30% 증가, 돈육은 67% 증가, 가금육 1% 증가, 잡육 38% 증가, 피혁 36%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입육시장에 물량을 공급하는 입장에 선 미국이 볼 때 수출물량확대의 강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냉장(冷藏) 및 냉동육(冷凍肉)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도 크게 고무되어있다. 미국은 일본의 수퍼마켓 체인에서 미국산 냉장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그 이유로 특정부위, 특히 값비싼 고급부위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내 미국산 냉동쇠고기의 대량사용처는 식품산업계이며, 용도

는 얇게 썬 구이용이다. 또한 미국산 냉동돈육이 대량사용처는 레스토랑 체인점, 클럽, 인스턴트 식당이며, 용도는 포크 컷트렛(돈까스), 포크진져, 햄버거 스테이크, 미트볼 등이다. 미국은 이같은 일본의 육류 수요에 고무되어 자국의 육류수출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 홍콩 및 대만(臺灣)

홍콩은 조그마한 섬나라이긴 하지만, 국경출입이 자유롭고 소비지출액도 엄청나 미국산 쇠고기, 돈육, 가금육 특히 냉동육은 세계 제4위의 소비국이다. 1994년의 예를 들면, 돈육의 경우 홍콩의 미국산수입이 1990년도의 240만 달러에서 1994년의 880만 달러로 270% 증가했다. 1995년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벌써 1,460만 달러를 수입해 1994년에 비해 무려 342%나 증가했다.

이렇게 볼 때 홍콩의 육류시장은 과연 미국 육류수출업자의 흥미를 끌만하다. 향후 미국은 홍콩에서 자국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대만의 미국산 육류(쇠고기, 돈육, 가금육, 잡육) 수입액은 3,500만달러를 넘어섰고, 199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입액도 3,410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1995년 전체의 수입액을 집계한다면 1994년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대만은 세계 7위의 미국산 돈육수입국이다. 199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돈육수입액은 45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 달러 못미치는 액수다. 따라서 1995년 전체의 수입액을 최종 집계한다면 1994년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이렇듯 대만육류시장이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미농무부도 수출지원을 위한 전략을 나름대로 구상하리라 예상된다. 미국은 대만의 미국산 육류수입증가가 단기적인 추세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청신호로 작용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의 미국산 육류수입 증가추세가 단기적으로 지속된 것은 대만의 축산(畜産)분야가 정체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장기적인 증가추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만경제(經濟)자체가 성장해야만 가능하다.

대만이 어떤 조건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느냐 하는 것은 미국산 육류 및 피혁의 대만시장점유율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점을 잘 알고 있을 미국 무역정책당국으로서는 미국에 유리한 합의를 대만으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우리나라 육류시장 전망

미국은 우리나라를 자국의 육류수출확대를 위해 아주 유망한 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농무부의 뇌리(腦裡)에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 소비지출력 증대, 음식문화패턴의 점진적인 서구화로 각인(刻印)되어 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산 식품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특히나 미국산 고급식품을 많이 수입할 것이라는 판단을 미국은 하고있는 것

이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미국산 피혁수입국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제3위의 미국산 쇠고기수입국, 세계 제5위의 미국산 돈육 및 잡육수입국, 가금육의 경우는 상위 10위권내에 든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농무부에게 있어 우리나라는 자국의 수출확대 전략대상시장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특기(特記)할만한 것은 1995년의 미국산 돈육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1995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는 2,440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돈육을 수입했는데, 1994년 전체의 62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산 돈육이 이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중의 하나는 UR협정에 따라 쿼타제에 의한 돈유수입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미구산 잡육수입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1990년에 비해 1994년은 무려 11배이상 늘어났다. 199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미국산 잡육수입도 벌써 1,300만 달러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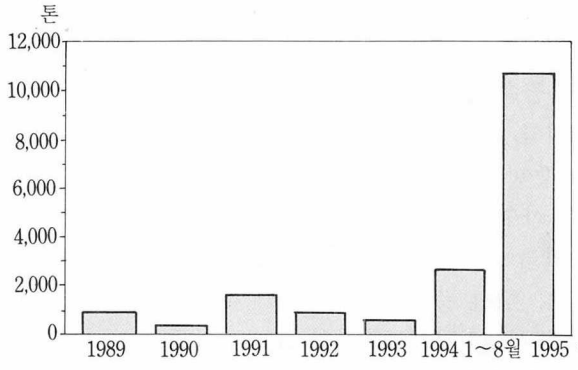
미농무부는 우리나라의 향후 육류수입, 특히 미국산 수입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근거로 ① 소비증가율의 강세 ② 국내 생산 부족 ③ 높은 생산비 ④ 국내가격상승 ⑤ 1993년의 한미(韓美)쇠고기 양해각서(諒解覺書 : Record of Understanding) ⑥ 1995년 7월 한미쇠고기협상의 유통기한(shelf-life)합의 등을 들고 있다. 미농무부는 자국의 대한(對韓) 육류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향후 ① 한미쇠고기협상을 계속열고 ② 유통기한합의의 추후개정(改訂)같은 것을 통해 우리나라 육류시장의 개방확대를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우리나라의 국가별 돈육수입현황

(단위 : M/T, 정육기준)

	1994	1995	증 감 률
덴 마 크	18,795	12,839	−32%
미 국	580	10,505	18배
영 국	1,193	4,988	4배
캐 나 다	−	4,422	신규
아 일 랜 드	2,497	2,212	−11%
네 덜 란 드	−	586	신규
대 만	342	397	+16%
스 웨 덴	−	270	신규
일 본	−	23	신규
합 계	23,407	36,242	+55%
미국산의 시장점유율	2.5%	29%	+26.5%

자료원 : 무역통계 년보



〈표 2〉 우리나라의 미국산 돈육수입추세

3. 미국 농무부의 우리나라 돈육시장 전망

미농무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돈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미국산 돈육의 떠오르는 수출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UR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돈육시장이 과거보다는 더 열렸다는데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보다 많은 물량을 우리나라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축산업중 양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잘 알고있다. 즉 우리나라의 양

돈산업은 축산업중 가장 발달되었으며, 이제 대규모 현대시설을 갖춘 양돈업이 우리나라 돈육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정부가 양돈산업을 축산업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키우기위해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다. 향후 농촌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를 확대한다든지, 수출촉진과 종돈개량에 지원을 늘여가는 형태로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있다.

우리나라의 돼지사육두수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가당 평균사육규모도 늘어났는데 1990년은 34두였지만, 1994년에는 110두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돼지사육두수 증가가세가 1994년에 주춤한 원인을 무더운 여름날씨탓에 폐사가 늘어난데서 찾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번식돈농가의 손실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우리나라 돼지 사육두수증가세가 1995년에 재개(再開)되고, 1996년의 사육두수를 610만두로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1995년 우리나라 돈육생산이 784,000톤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기록적인 돼지가격상승은 양돈가들이 사육규모를 늘이도록 부추겼다.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수입이 현저히 증가했다. 1994년 우리나라의 돈육수입은 26,000톤으로 1993년에 비해 12배 증가했다. 1995년의 수입은 75,000톤으로 1994년보다 3배, 1996년은 1995년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돈육수입시장점유율은 보면, 미국은 1995년 29%(물량 기준)를 차지해 1994년의 2.5%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덴마크는 여전히 우리나라 돈육수입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1994년의 80%에서 1995년 35%로 절반을 훨씬 넘게 줄어들어 긴장을 멈추지않고 있다. 아일랜드도 11%에서 6%로 줄어들었다. 미국만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돈육 수출확대의 호기(好機)를 잡은 셈이다. 미농무부는 수출보조금을 받는 덴마크산 돈육과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경쟁하기 위해 독창적인 마케팅(marketing)기술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협정에 따라 1995년 냉동돈육 수입쿼타로 12,930톤을, 1996년에는 29,240톤을 책정했다. 완전 수입개방시점은 1997년 7월이다. 1997년 6월 30일 까지 수입냉동돈육의 관세율은 25%이다. 그런데 1997년 7월 1일부로 냉동돈육수입에 대한 모든 양적 제한이 철회될 것이며, 33.4%의 관세가 부과되는 걸로 대체될 것이다. 이 관세율은 2004년 25%가 되도록 1997년이후부터 매년 균등하게 감축될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수입냉동돈육 관세율 감축에 따라 자국의 수출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냉장돈육은 1994년 1월 1일자로 완전 수입개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통기한 규제 때문에 실제로는 수입(輸入)이 없었다. 그러다가 미돈육업계의 집요한 요구에 부응한 미당국(當局)의 압력으로 우리나라의 유통기한규제는 미국에 유리하게 수정(식품공전 개정을 가리킴)되어 1995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즉 진공포장(vacuum-packed) 냉장돈육의 유통기한은 45일로 연장되었다.

미농무부의 판단으로는 비록 유통기한연장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해도 초기에는 유통시설미비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미농무부는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자국의 수출업자에게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당부하고 있다.